

## 토종 경제의 몰락

한 시대를 풍미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토종 업체들이 대기업 자본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맛선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광주 지역 토종 호텔 상당수가 최근 대형 특급호텔에 자리를 내줬다.

총장로·금남로 전성시대 상징인 리버사이드호텔과 그랜드호텔은 복합쇼핑몰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남구의 대표적인 호텔인 국제호텔은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오피스텔로 리모델링 중이고, 광주 관문에 있던 프린스호텔은 이미 교화로 변신했다.

토종호텔들이 사라지는 데에는 구도심 공동화와 글로벌 호텔체인의 잇단 진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고교시절 단체관광의 추억을 간직한 극장들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올 1월에는 100년 가깝게 광주의

### 대기업·프랜차이즈 무한공세 20년

### 백화점·호텔·극장·제과점 사라져

총장로를 지켜왔던 무등극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1920년대 '제국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무등극장은 멀티관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며 버텼지만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 극장의 공세를 더는 버티지 못했다.

제일극장(2000년), 현대극장(2004년)이 차례로 문을 닫았고, 콜롬버스시네마까지 영업권을 대기업에 넘기면서 광주극장을 제외한 향토 극장은 모두 은막을 걷었다.

향토 극장들의 공백은 CGV를 비롯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기업들이 차지했다.

골목을 지켜왔던 '동네 빵집'들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광주제과협회에 등록된 제과점은 400여 곳, 최근 5년 사이 150여 곳(약 38%)의 '동네빵집'이 사라졌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뉴욕제과, 부래옥, 초하남, 중앙과자 등 추어의 빵집들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에 의해 명맥이 끊겼다.

지역 유통업계를 이끌었던 하나·가든 등 향토 백화점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국내 백화점업체 '빅3'(신세계·롯데·현대)에 이미 자리를 내줬다.

1977년 호남지역 최초 백화점이었던 하나는 1997년 부도를 맞았고, 가든백화점은 전문쇼핑몰인 '이프 유'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0년 폐업, 33년의 역사를 끝냈다. 1995년 개점한 송원백화점도 현대백화점에 경영을 위임하면서 향토 백화점 시대를 마감했다.

김선희(여·45·광주시 북구 두암동)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극장 등 광주시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재 중소기업인사리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 자본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중소기업 몰락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지역 경제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내가... 호남에 진 빚 모두 갚겠다”

### 새누리 광주서 대선경선 첫 합동연설회...너도나도 안철수 때리기

새누리당이 26일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갖고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30일간의 경선 대장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4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열

주체육관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기호 순) 등 5명의 대선경선 후보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및 당원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이른바 '비박'(非朴) 후보들은 불통과 역사인식, 대세론 등을 집중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를 집중공격했고, 박 후보는 이에 이렇듯하지않고 호남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각 후보들은 이날 연설회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책을 출간하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하물며 택시기사도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모든 일에 그만큼 경험이 필요한데 무자격자인 무면허자가 어떻게 거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교수를 겨냥했다.

김태호 후보는 "'안풍' '안공' 하는데 김태호 앞에서는 허풍"이라며 "안철수가 양식장에서 자란 양식 횡감이라면 저는 거친 파도와 싸운 자연산 활어 횡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경선의 본격 출발을 알리는 합동연설회를 시작한 것은 '호남이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변화하고 있는 호남의 민심을 달래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의 성지이며, 나라를 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람이었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연 것은 귀중한 땅의 결단"이라며 "호남은 새누리당의 최전방이며, 프론티어로, 호남에서 이번 대선의 승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70억 축제’ 런던올림픽 개막

### 내일 새벽...한국 22개 종목 245명 선수 ‘10-10’ 목표

관련기사 3·7·14·15면

4년을 기다린 축제가 시작된다. 지구촌의 스포츠 대전 제30회 런던올림픽이 27일 밤 9시(한국시각 28일 오전 5시)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벌리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1908, 1948년에 이어 런던에서 맞는 세 번째 올림픽이다.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이라는 모토를 내건 런던올림픽에는 204개국 1만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8월12일까지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한국은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를 파견해 런던의 가슴 뭉클한 역사를 되새긴다. 한국은 지난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하계대회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가슴에 단 51명의 태극전사들은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32위를 달성했다.

64년 전 한국의 첫 올림픽 무대가 된 런던을 다시 찾은 한국선수단은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런던에서 런던으로)'을 콘셉트로 '10-10'에 도전한다. 10개의 금메달로 종합 순위 10안에 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올림픽은 여성 스포츠사의 새로운 역사가 되는 무대이기도 하다. 여자 복싱이 정식 종목이 되면서 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모든 종목에 여성 선수들이 출전한다. 또 여성 선수의 참가를 금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여자 선수를 파견하면서 하계올림픽의 새 장을 열었다.

'10-10'을 향한 한국의 첫 금메달 도전은 28일 오후 11시15분(이하 한국시각)에 시작된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중오가 10m 공기권총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겨냥한다.

양궁의 금메달 릴레이는 29일 오전 2시10분 시작된다. 임동현·오진혁·김법민으로 구성된 남자양궁대표팀이 단체전 4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30일 오전 2시에는 광주시청 기보배와 이상진·최현주가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위한 결승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신공' 기보배를 배출한 광주여대는 한여름밤 응원전으로 북적이게 된다. 단체전 예선이 시작되는 오는 29일 밤 11시부터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기보배의 가족들이 참가하는 응원전이 펼쳐진다.

기보배를 선두로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올림픽 도전기가 이어진다. 광주체육 출신의 양학선이 도마에서 한국 사상 첫 체조 금메달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배드민턴의 이동대는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위해 라켓을 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선수단 입촌

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 선수단이 26일 새벽(한국시각) 영국 런던올림픽 광장 내 입촌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www.r-golf.com

골프 · 특급호텔 · 의료

## 천만원대의 회원권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라!

### 룩펠러 멀티 회원권

하나의 회원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멀티회원권입니다. 룩펠러회원권거래소(주)에서는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제휴하여 여러 골프장과 특급호텔 · 의료 이용혜택을 드리는 룩펠러 멀티 회원권을 **한정 모집**합니다.

**룩펠러 멀티회원 특별혜택**

- 기명 1인 입회
- 골드레이크C.C.(퍼블릭), 무등산C.C., 아크로C.C., 푸른솔골프클럽 각 골프장별 매월 3회(일요일 1회 포함) 그린피(카트비 제외) 30% 지원
- 골프장에서 그린피 행사 할인시 20% 추가 지원
- 광장골프존, 리얼스크린골프존, 자이언트골프존 각 스크린 골프장별 매월 5회 그린피 30% 지원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가(스탠드룸 기준)
- 세계로한방병원 골프전문 클리닉,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한의원 피부미용,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 혜택
- 통합 부킹 사이트 정회원 대우
- ※ 본 할인혜택은 룩펠러회원권거래소, 미래에셋생명에서 제공합니다.

**미래에셋생명 공동개발 신개념 회원권**

- 입회기간 : 5년(만기 연장 또는 원금 반환)
- 입금방식 : 미래에셋생명 개인 전용계좌 직권설정가능(설정비용 수수료는 본인 부담)
- 보증금 예치기관 : 미래에셋생명
- 예금주 : 광주은행 032-107-085749 룩펠러회원권거래소(주)

※ 멀티회원권전담부서 운영(입회 1년 후 명의 개서 가능)  
미래에셋생명 자금관리 원금보장

룩펠러회원권거래소(주) | 가문의 062-351-0095 | 예약문의 062-655-7799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9-1 층